

치위생학과 학생의 사회 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의 평가

김해선^{1,2} · 장선옥¹ · 한선영¹ · 최진아¹ · 정원균^{1†}

¹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²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Evaluation of the Specialized Elective Cours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Career to Pursue Provided by Yonsei University in Korea

Hae-Sun Kim^{1,2}, Sun-Ok Jang¹, Sun-Young Han¹, Jin-Ah Choi¹ and Won Gyun Chung^{1†}

¹Dept. of Dental Hygiene,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162 Ilsan-dong, Wonju, Gangwon-do 220-701, Korea

²Dept. of Preventive Dentistry and Public Oral Health,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262 Seongsan-n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outcomes of the specialized elective course program to be designed to help dental hygiene student to pursue the career by providing the opportunities of attendance to the diverse social settings. Students participating the specialized elective course were required to attend one of the related dental or dental hygiene institutes of their own choice during 2 weeks. After that to evaluate satisfaction of the specialized elective course, 70 of 103 students who have graduated dental hygiene school in Yonsei University responded questionnaire that consist of satisfaction on the specialized elective course, influence on career, change of attitude for career etc. The most students satisfied the specialized elective course(very good 21.4%, good 47.1%, and neutral 24.3%) and satisfaction on this program was significant among related dental institutes. The majority of students(87.1%) responded the specialized elective course to have influence on their career. Aspect to change of attitude for career, 63 percent of students started serious consideration making a decision on career. This findings indicate that the most students satisfy the specialized elective course, and this program providing the opportunity of attendance to the diverse social settings seems to help dental hygiene student to pursue the career.

Key words The specialized elective course for career to pursue, Dental hygiene education

서 론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은 인적 자원의 질에 달려 있다.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이 그 배경이 되어야 한다. 학교는 그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 맞는 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자기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대학은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의 창출·보급·활용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¹⁾. 대학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 경영의 주체로서 세계화와 개방화에 대비해야 한다. 나아가 대학은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대학교육의 체제도 전문성과 다양한 소양을 지

닌 고급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2,3)}.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에 연세대학교 의학기술수련원을 시작으로 현재 60개 대학에서 치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 직무기술서에는 치과위생사의 주요 업무를 예방치과진료, 구강보건교육, 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의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각 대학에서는 이러한 치과위생사의 주요 업무에 초점을 맞춰 치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위생교육은 대부분 치과병의원 등의 진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과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도 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정형화된 주입식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 치위생과의 교육과정은 전공대 교양 교육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77:23 정도로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 비해 교양교육의 비율이 낮아서 주로 실무적인 전공교육에 치중하고 있다⁴⁾. 또한 그 전공교육도 대부분 국가면허시험의 시험 교과목 위주로 편제되어 있다. 이 같은 치위생교육 환경 아래에서는 학

†Corresponding author
Tel: 033-741-0392
Fax: 033-735-0391
E-mail: wgchung@yonsei.ac.kr

생 개개인이 가진 다양한 관심과 자질을 개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학생들이 사회의 여러 분야로 자신의 진로를 다양하게 모색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미국치과위생사협회⁵⁾에서는 치과위생사를 임상가, 교육자 및 건강증진가, 관리자, 대상자의 증제자, 변화의 주도자, 연구자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강보건전문가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치위생교육은 치과위생사의 다양하고 통합적인 역량을 길러내기보다는 주로 치과임상에서 요구하는 제한적인 기능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치위생(학)과를 졸업한 치과위생사의 대부분이 치과병원에 국한하여 사회 진출을 하고 있고,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도 진료보조 등의 단순 업무에 그치고 있어서 잦은 이직과 조기 퇴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신규로 배출되는 치과위생사의 수가 폭증하고 있어서 치과병원의 취업 시장도 머지않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 같은 양상의 사회 진출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치과계에서는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이 바뀌고, 치과전문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치과의료전달체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에도 이러한 환경에 조응하여 변화가 필요하다⁶⁾. 치과위생사의 새로운 역할과 업무 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다양성·연계성·계열성·계속성·통합성을 갖춘 치위생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보건의료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자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⁴⁾. 과거의 우리나라 치과위생사는 치과진료 보조자의 직업적 이미지가 강하였다. 그러나 미래의 치과위생사는 전문직 보건의료인으로서 이에 조응하는 폭넓은 소양과 다양한 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대학에서는 이를 담보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⁴⁾. 치과위생사가 다른 전문직과 견줄 수 있는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취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다양한 사회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이는 치위생계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일환으로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에서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다양한 사회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특성화 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5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특성화 선택과정(The specialized elective course for career to pursue)'이라 칭하는 이 실습프로그램은 졸업을 앞둔 치위생학과 고학년 학생이 학과에서 선정한 외부의 대상 기관 가운데 한 곳을 스스로 선택하여, 해당 기관에서 2주 동안 머물며 체험하는 교과목이다. 아울러, 특성화 선택과정을 마친 후에는 보고회라는 발표 형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한다.

특성화 선택과정은 학생들이 치위생학과와 확립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심과 잠재적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실습프로그램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이 사회 진출의 방향을 모색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며, 대외적으로는 치과위생사라는 직종을 구체적으로 알림으로써 그동안 치과위생사가 진출하지 못한 사회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에서 지난 3년 동안 실시한 특성화 선택과정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이 성과를 치과위생사의 다양한 사회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 선택과정에 대한 만족도, 특성화 선택과정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특성화 선택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 선택에 어떠한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의 교육적 성과를 파악하려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특성화 선택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에 참여했던 졸업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업법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에 참여했던 졸업생 103명 가운데 회신이 된 70부의 설문을 이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체 개발하였고, 일부 졸업생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수정 및 보완을 한 후 완성하였다.

2. 통계분석 방법

통계 분석에는 SPSS 12.0K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특성, 특성화 선택과정의 실습기관을 선택한 기준, 실습기관에 취업하지 않은 이유,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특성화 선택과정에 대한 만족도, 진로에 영향을 미친 정도, 유익했던 점 등은 실습 기관, 현 근무지, 근무 연차로 구별하여 교차분석(Crosstabulation)을 시행하였으며, 기대도수가 5보다 낮은 빈도를 갖는 셀이 20%이상이었으므로 Fisher's exact test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결 과

1. 특성화 선택과정의 실습기관 및 연구 대상자의 특성

특성화 선택과정의 대상으로 선정한 실습기관은 대학(원), 기업, 병원, 보건소, 기타로 구분하여, 총 24개의 외부 기관이었다(Table 1). 대학(원)의 경우 11기관, 회사 7기관, 병원 2기관, 보건소 1기관, 기타 3기관이었다(Table 1).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는 92.9%가 여자였고, 응답자 가운데 44.3%가 현재 대학병원/치과병원에서 근무하고

Table 1. The related dental or dental hygiene institutes for the specialized elective course for career to pursu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1. Dept. of Oral Biology (Anatomy) 2. Dept. of Oral Biology (Histology) 3. Dept. of Oral Biology (Physiology) 4. Dept. of Oral Biology (Biochemistry) 5. Dept. of Oral Biology (Pharmacology) 6. Dept. of Oral Biology (Microbiology) 7. Dept. of Oral Pathology 8. Dept. of Preventive Dentistry and Public Oral Health 9. Dept. of Dental Biomaterials	Company Hospital	12. Shinhung 13. Philips 14. Oral-B(05-07) 15. Osstem Implant(05) 16. LG Household & Health Care(05) 17. LG Household & Health Care: Oral Care(Deajeon institute)(06) 18. Oksan Preden(07) 19. Smile Charity Foundation, Special Care Dental Hospital(05~06) 20. Seoul Dental Hospital for the Disabled(06~07)
Kangnung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10. Dept. of Preventive and Public Health Dentistry	Public Health Center	21. Ewha Women's University Health Service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11. Dept. of Preventive and Public Health Dentistry(07)	The others	22. Korea Dentists Association For Healthy Society(06~07) 23.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24. Akermedia(05~06)

있다고 답하였다(Table 2). 현재 근무처에서 근무기간은 6~12개월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 년차는 1, 2, 3년차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Table 2).

2. 특성화 선택과정의 실습기관을 선택한 기준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기관의 선택 기준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을 선택'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64.3%), 그 다음으로 '앞으로 취업(진학)하고 싶은 기관을 선택'(27.1%), '분위기가 좋은 기관을 선택'(2.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3.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에 대한 만족도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21.4%, '만족' 47.1%, '보통' 24.3%로 대부분의 학생이 만족하였고, 기업이나 병원으로 실습을 나간 경우에 비해

Table 3. Criteria of choice of related dental or dental hygiene institutes

Classification	N(%)
Prospective institute that wants to be employed	19(27.1)
Attendance to the diverse social settings	45(64.3)
Institute of a pleasant(an intimate) atmosphere	2(2.9)
Recommendation of others	0(0)
Institute of easy to get a good grade	0(0)
etc.	3(4.3)

대학(원)으로 실습을 나간 경우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생활 1년차에 비해 2년차와 3년차의 경우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현 근무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Table 4).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ng students

	Classification	N(%)
Sex	Female	65(92.9)
	Male	5(7.1)
The present place of work	University hospital/ Dental hospital	31(44.3)
	Dental clinic	9(12.9)
	Graduate course	17(24.3)
	Institutes	1(1.4)
	etc.	7(10.0)
Period of work at the present place of work	0~3 months	17(24.3)
	3~6 months	5(7.1)
	6~12 months	23(32.9)
	12~24 months	14(20.0)
	etc.	6(8.6)
Career	3 years	23(32.9)
	2 years	25(35.7)
	1 years	22(31.4)

4.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에서 유익했던 점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응답하였으며(95.7%), 실습기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새로운 지식을 많이 습득하여 좋았다'와 '분위기가 좋아 좋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62.9%, 58.6%로 나타났으며 실습기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5).

5.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이 진로에 미친 영향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이 '자신의 진로에 매우 강한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17.1%, '강한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44.3%, '보통'이라는 응답이 25.7%로서 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으로 실습을 나간 경우 '자신의 진로에 매우 강한 영향을 주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25%) 실습기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Table 6).

Table 4. Satisfaction on the specialized elective course

Unit: N(%)

Classification	Total	Good			Bad		p-value*	
		Very Good	Good	Neutral	Not Very Good	Not at All Good		
Total	70(100)	15(21.4)	33(47.1)	17(24.3)	5(7.1)	0(0)		
Institutes	Graduate course	32(100)	8(25.0)	17(53.1)	7(21.9)	0(0)	0(0)	0.031
	Company	21(100)	5(23.8)	7(33.3)	5(23.8)	4(19.0)	0(0)	
	Hospital	6(100)	1(16.7)	3(50.0)	2(33.3)	0(0)	0(0)	
	etc.	11(100)	1(9.1)	6(54.5)	3(27.3)	1(9.1)	0(0)	
The present place of work	Dental Practice [†]	43(100)	8(18.6)	19(44.2)	14(32.6)	2(4.7)	0(0)	0.367
	Entering a school of higher grade [‡]	27(100)	7(25.9)	14(51.9)	3(11.1)	3(11.1)	0(0)	
Career	3 years	23(100)	4(17.4)	11(47.8)	8(34.8)	0(0)	0(0)	0.038
	2 years	25(100)	8(32.0)	13(52.0)	3(12.0)	1(4.0)	0(0)	
	1 years	22(100)	3(13.6)	9(40.9)	6(27.3)	4(18.2)	0(0)	

*Fisher's exact test(χ^2) by classifying as a good with a bad

[†]University hospital,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Graduate course, etc. (Preparation of studying abroad, Preparation of entering a school of higher grade etc. One person works company)

Table 5. Good things from the specialized elective course(a plural answer)

Unit: N(%)

Classification	Total	Institutes				p-value*
		Graduate Course	Company	Clinic	etc.	
Learning new knowledge	44(62.9)	27(61.4)	10(22.7)	1(2.3)	6(13.6)	0.002
Diverse experience on social settings	67(95.7)	32(47.8)	19(28.4)	6(9.0)	10(14.9)	0.234
Systematic guide in their studies	20(28.6)	13(65.0)	5(25.0)	1(5.0)	1(5.0)	0.193
A pleasant(an intimate) atmosphere	41(58.6)	16(39.0)	10(24.4)	4(9.8)	11(26.8)	0.008
Easy not to give an assignment	13(18.6)	4(30.8)	2(15.4)	4(30.8)	3(23.1)	0.016
Nothing	6(8.6)	2(33.3)	4(66.7)	0(0.0)	0(0.0)	0.323
etc.	4(5.7)	2(5.0)	2(50.0)	0(0.0)	0(0.0)	0.875

*Fisher's exact test(χ^2)

Table 6. Influence on career

Unit: N(%)

Division	Total	Influence			Not Influence		p-value*	
		Strong Influence	Influence	Neutral	Not Influence	Never Influence		
Total	70(100)	12(17.1)	31(44.3)	18(25.7)	7(10.0)	2(2.9)		
Institutes	Graduate course	32(100)	8(25.0)	17(53.1)	5(15.6)	2(6.3)	0(0)	0.085
	Company	21(100)	2(9.5)	8(38.1)	8(38.1)	2(9.5)	1(4.8)	
	Hospital	6(100)	1(16.7)	1(16.7)	4(66.7)	0(0)	0(0)	
	etc.	11(100)	1(9.1)	5(45.5)	1(9.1)	3(27.3)	1(9.1)	

*Fisher's exact test(χ^2) by classifying as a influence with a not influence

6.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 후의 태도 변화

특성화 선택과정의 실습 이후 52.9%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였으며 17.6%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진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원으로 실습을 나간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55.6%) 실습기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Table 7).

7. 특성화 선택과정의 실습기관에 취업하지 않은 이유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을 마친 후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업무였다'는 이유와 '실습을 나갔던 기관이 본인

의 적성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실습기관에 취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2.9%, 20.0%로 나타났다(Table 8). 또한 실습을 다녀온 기관에 취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취업하고 싶었으나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14.3%)이라고 응답하였다.

8.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의 개선 사항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습을 두 기관으로 다녀오길 희망하였고(71.4%), 실습기간은 2주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50.0%) 일부는 4주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34.3%). 실습 시기는 3학년 겨울방학이 가장 적당하다는 응답이 42.9%

Table 7. Change of attitude for career

Unit: N(%)

Classification	Institutes				
	Total	Graduate course	Company	Clinic	etc.
Start prepare for course (example: english study, certificate etc)	2(2.9)	2(100)	0(0)	0(0)	0(0)
Start serious consideration making a decision on career	36(52.9)	20(55.6)	9(25.0)	6(16.7)	1(2.8)
Change a direction	12(17.6)	4(33.3)	5(41.7)	2(16.7)	1(8.3)
Hard making a decision on career	4(5.9)	2(50.0)	1(25.0)	1(25.0)	0(0)
Nothing change of attitude etc.	12(17.6)	4(33.3)	3(25.0)	2(16.7)	3(25.0)
<i>p</i> -value	2(2.9)	0(0)	2(100)	0(0)	0(0)

Fisher's exact test(χ^2)

Table 8. Reason for not working at attending institutes

Classification	N(%)
The work which not suit one's personality	14(20.0)
Work which different from one's expectation	23(32.9)
Too many hiring requirements to join company and give up	0(0)
Company which have not do work	1(1.4)
No chance of hiring	10(14.3)
etc.	14(20.0)
Total	62(100)

Exclude missing data

Table 9. Improvement of the specialized elective course

Classification	N(%)	
Number of chance on attending institutes	One institute	11(15.7)
	Two institutes	50(71.4)
	Three institutes	6(8.6)
	etc.	2(2.9)
Period of specialized elective course	6 weeks	2(2.9)
	4 weeks	24(34.3)
	2 weeks	35(50.0)
	1 week	2(2.9)
Time of specialized elective course	etc.	7(10.0)
	Summer vacation of sophomore	4(5.7)
	Winter vacation of sophomore	5(7.1)
	During the first semester of junior	3(4.3)
	Summer vacation of junior	8(11.4)
	Winter vacation of junior	30(42.9)
	During the first semester senior	5(7.1)
etc.	7(21.5)	

였고, 3학년 여름방학이 가장 적당하다는 답은 11.4%이었다(Table 9).

고 찰

교수자가 교육방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자 할 때 학

생들이 내리는 교육자와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장 유용한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7,8)}. 만족도는 결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교육 뿐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와 보건의료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서비스로 구성되는 내용일수록 그 결과가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가 결과를 평가하는 주요한 도구가 된다⁹⁾. 따라서 의학교육에서는 의학 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를 통해 교육의 결과와 과정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삼고 있다^{10,11)}. 하지만 치위생(학)과에서는 교육에 대한 결과 평가가 미흡하고, 특히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실시하였던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치과위생사의 다양한 사회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특성화 선택과정의 실습기관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4.3%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을 선택하였다'고 답을 하여, 치과병의원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다양한 경험하고 싶은 욕구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과 고¹²⁾의 치위생과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치과병의원으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의 교육만족도(42.9%)가 치과병의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51.5%)에 비해 낮았다. 따라서 이러한 체험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치과병의원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 환경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실습기관을 선택할 때 앞으로 취업이나 진학을 희망하는 기관을 미리 알아보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려는 성향을 보였다(27.1%). 실제로 대학(원)과 기업으로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을 다녀온 학생 가운데 대학원으로 진학한 학생은 9명이었고, 기업으로 취업한 학생이 1명이었다. 또한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을 나갔던 기관에 취업 또는 진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0%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고 답을 한 사실로 미루어, 특성화 선택과정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주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의대교육에서도 역시 의대생의 진로 선택에는 개인의 성격, 연령, 가치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인 요인들과 전문과목의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내적 요인과 의과대학 재학기간 동안의 경험과 사회적 요소, 의료체계 등의 외적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하였고^{13,14)} 실제로 의대생들의 다양해지고 있는 취업 형태를 위해 그에 맞는 교육의 개편 방안에 대해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15,16)}.

특성화 선택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21.4%, 만족이 47.1%, 보통이 24.3%로 대부분의 학생이 이 실습 프로그램에 만족하였다. 매우 만족과 만족 및 보통을 만족으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불만족으로 재분류하여 검정한 결과, 기관의 종류와 사회생활의 연차에 따라 특성화 선택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관의 종류에 따라서는 관련 기업이나 사회단체로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을 다녀온 학생들의 만족도가 치과대학이나 치과병원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치과 관련 기업이나 단체가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부족할 뿐 아니라 해당 기관에 치과위생사가 취업한 사례도 많지 않아 이들 기관에서 준비된 실습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치과위생사의 다양한 사회진출을 모색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즉,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의 치위생 관련 기관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직종과 역할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치위생학계에서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행능력(리더십, 영어능력,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능력, 행정 및 경영능력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의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 근무처에 따른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사회생활의 연차에 따라서는 특성화 선택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일정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차의 경우에는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에 대한 불만족이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치과위생사가 사회생활의 연차가 높아질수록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학생 시절에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을 통해 얻었던 색다른 경험을 상대적으로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좋았냐는 질문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좋았다는 등 여러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새로운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는 비율이 치과대학에서 크게 높았다.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의대 졸업 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에 대한 안내를 원하는 것에 알 수 있듯이¹⁶⁾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정 등¹⁶⁾에 의하면 학생 스스로의 흥미, 능력, 적성, 가치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토대로 다양한 진로선택 영역에 대해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이 본인의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로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고, 실습기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을 시작했거나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등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직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을 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해당 기관이 본인이 기대했던 업무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다른 방향의 진로를 현실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실습이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을 거친 후 남은 1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영어공인점수를 요구하는 대학병원이나 대학원으로 진출한 졸업생의 비율이 졸업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러한 특성화 선택과정이 학생들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동기부여를 한 원인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한다¹⁷⁾.

특성화 선택과정의 개선 사항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71.4%)이 실습기관을 두 곳으로 다녀 올 수 있도록 하고, 34.3%의 학생들이 실습기간을 2주에서 4주로 연장하는 것을 개선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에 앞서 특성화 선택과정이라는 체험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 횟수와 실습기간을 늘이는 등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를 통해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성화 선택과정이 만족스러운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과위생사가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취업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의 각 분야로 진출하여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때 치과위생사라는 직종은 비로소 우리 사회의 전문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진출의 방향을 모색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돕기 위해 시행된 특성화 선택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성화 선택과정은 졸업을 앞둔 치위생학과 고학년

학생이 학과에서 선정한 외부의 대상 기관 가운데 한 곳을 스스로 선택하여, 해당 기관에서 2주 동안 머물며 체험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특성화 선택과정에 참여한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졸업생 중 103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법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중 회신된 70부만이 본 연구를 위한 분석으로 활용하였다. 설문은 특성화 선택과정에 대한 만족도, 특성화 선택과정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특성화 선택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 선택에 어떠한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특성화 선택과정에 만족하고 있었으며(매우 만족 21.4%, 만족 47.1%, 보통 24.3%) 기관의 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많은 졸업생들은 특성화 선택과정이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으며(87.1%) 특성화 선택과정으로 인해 진로와 관련해서 어떠한 태도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63%의 졸업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사회의 다른 분야를 미리 경험해 봄으로써 진로 모색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 Yang EB: An inquiry into the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13(2): 317-332, 2001.
2. President Advisory Committee for Education Reform: Education reform plan for new education system establishment leading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era, 1995.
3. President Advisory Committee for Education Reform: Education reform plan for new education system establishment leading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era, 1996.
4. Cho YS: Comparison of curriculums of dental hygiene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5(4): 251-258, 2005.
5. <http://www.adha.org>
6. Kwon HK: The actual and advance directions of dental hygienist's practice.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40(12): 969-970, 2002.
7. Guilbert JJ: Educational handbook for health personnel 6th ed. World Health Organization, 1987.
8. Jones RF, Froom JD: Faculty and administration views of problems in faculty evaluation. Academic Medicine 69: 476-483, 1994.
9. Steiber SR, Krowinski WJ: Measuring and managing patient satisfaction. American Hospital Publishing, 1990.
10. Foldevi M: Undergraduate medical students' rating of clerkship in general practice. Family Practice 12: 207-213, 1995.
11. Irby DM: Teaching and learning in ambulatory care settings: a th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Academic Medicine 70: 898-931, 1995.
12. Kim SS, Go EK: Factors that affect satisfaction of education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6(2): 139-145, 2006.
13. Funkenstein DH: Medical students, medical school and society during five eras: factors affecting the career choices of physicians 1958-1976. Cambridge, Ballinger, 1978.
14. Parkhouse J, Ellin DJ: Reasons for doctor's career choice and change of choice. BMJ 296: 1651-1653, 1988.
15. Park JH, Kim KH, Jun HR: A national sample survey of medical students about their perception and evaluation on medical study, career plan, and medical care system: part 2. career plan after graduating from medical school. Korean J Med Educ 11(2): 364-378, 1999.
16. Chung SJ, Suh DH, Kim YI: Designing of an education model for career planning in medical schools. Korean J Med Educ 13(2): 309-315, 2001.
17. <http://dh.yonsei.ac.kr/>

(Received September 5, 2008; Accepted December 10, 2008)

